

종이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나선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물 전자계약으로 이뤄지게 하는 등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나섰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말부터 LH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전세임대 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할 방침이라면 올해 연말까지 약 1000여건의 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후 내년부터 LH가 맺는 약 3만5000건의 전세임대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자서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이루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서명이나 인감을 찍는 방식의 종이계약서가 사라져 간편하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을 마련했고 올 초부터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국토부, 9월부터 LH 청년전세임대에 1000여건 진행

공공부문 시범실시 ... 내년 3만5000여건 성사 될 듯

개인간 계약 등 민간분야 확대 시스템 안정화도 추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는 시범대상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2년간 25억원을 들여 전자계약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종이서류가 안전하다는 인식 탓에 편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용실적을 보여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에 대한 시민들의 보수적인 인식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간 전자계약 시스템 확산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LH 등 공공부문의 참여로 다음달부터 전자계약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LH와 사전협약을 완료한 상태다. 다만 LH가 추진하는 전세임대

는 입주 신청자가 조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이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뒤 다시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대인-임차인-중개인’이 거래 주체인 전자계약 시스템에 LH를 추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불편이 지적됐다.

또 계약서의 양식도 LH 자체 양식을 새로 추가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시스템 보안을 추진 중이라며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SH공사와의 전자계약 도입이 성사될 경우 수도권 공공부문을 통해 부

동산 전자계약 확산이 더욱 빨라진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일반 당사자간 전자계약 거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성 향상을 위해 허위계약 등 사기성 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보안장치 마련 등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민간분야 확대를 위해 공인중개사업계는 물론 법무사업계와도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전자계약 활성화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도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소유권 이전과 등기업무까지 가능하고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까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LH, 불법 하도급 근절 나서

공정거래상생추진단 신설

불공정거래업체 점검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했다.

LH는 지난 8일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 업체 특별점검 및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 하도급 계획 이행 점검 및 불공정하도급 해소 센터 운영 강화 등을 담당한다.

또한 공사대금 흐름을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 및 체불해소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업체는 각 부정당업자 및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고 LH 건설공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현장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개선해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라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업무 실효성을 높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드론 배우러 담양 오세요

익산국토청, 홍수조절지내 체험교육장·레이싱경기장 등 조성

호남지역 청소년 등이 드론을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담양에 마련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담양읍 월산면 일대 홍수조절지에 드론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드론체험교육장은 4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교육장 1곳과 초급용 실외 체험장 1곳, 중급자용 실외 체험장 1곳, 동호인들을 위한 레이싱경기장 1곳 등으로 구성된다.

또 교육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와 차량 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등 부대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드론체험교육장은 이달 말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체험교육장의 운영·관리는 담양홍수조절지를 관리하는 K-water 영산강통합물관리센터에서 맡는다.

담양홍수조절지는 대도시인 광주시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안전성도 우수해 드론 체험교육장으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강사와 안전요원도 채용할 계획이다.

익산국토청은 드론 체험교육장을 통해



드론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드론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드론 산업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지만 안전하고 체계적으

로 드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며 “전문 강사로부터 드론교육을 받을 수 있어 올바른 드론 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간소화

지자체장 직권 빈집 철거, 임대주택·공원조성 가능

‘소규모 정비법’ 이번주 발의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원을 짓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소규모

정비법)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승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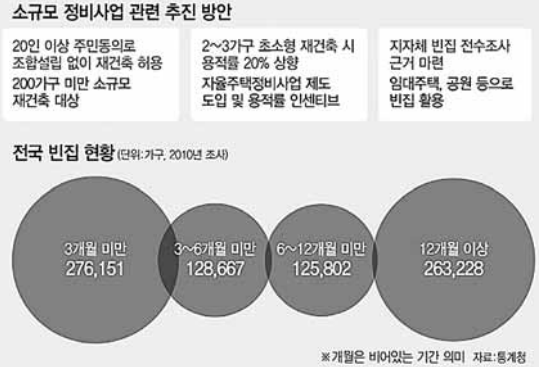
이번 발의되는 소규모정비법에는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이 신설됐다.

소규모 재건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 중 200가구 미만 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미만 대상이다.

특히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해야만 추진할 수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주민협의체만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가 주어진다.

사업절차도 ‘조합설립→건축심의→관리처분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인가→착공 4단계만 거치도록 간소화된다.

소규모정비법에는 도시·농어촌·산간의 빈집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철거해 공공임대주택·공원·주차장 등을 만



들고, 이같은 빈집정비에 국비·주택도시 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연휴뉴스



온비드 공개 광주·전남 관심 물건



◆광주 광산구 쌍암동 소재 근린생활 시설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88-4 아울렛코리아 점단점 5층 502호, 2층 250호, 251호, 252호
- 관리번호 : 2016-03156-005
- 면적 : 건물 395.8㎡, 대(지분) 156.91㎡, 건물 73.5㎡, 대(지분) 29.14㎡, 건물 73.5㎡, 대(지분) 29.14㎡, 건물 102.9㎡, 대(지분) 40.79㎡
- 감정가격 : 금 942,000,000원
- 최저입찰가격 : 금 942,000,000원
-입찰기간 : 2016.08.22.~2016.08.24.
- 내용 :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광주우편집중국 북측 인근에 위치, 교통 조건은 무난함.



◆전남 보성군 벌교읍 소재 전
- 소재지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405-1
- 관리번호 : 2016-03808-001
- 면적 : 전 1,031㎡
- 감정가격 : 금 74,953,700원
- 최저입찰가격 : 금 74,954,000원
- 입찰기간 : 2016.08.22. ~ 2016.08.24.
- 내용 :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제석 아파트 북서측 인근에 위치, 인근은 아파트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근교농경지 대입.

※ 인터넷 입찰은 온비드 홈페이지 (http : //www.onbid.co.kr)에서 가능 (현장 입찰은 없음)
※ 온비드 콜센터:1588-5321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솔향기맑은터.com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찜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도시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장 솔터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토,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